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제218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혜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윤(동아이지에듀)
- 정기성(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6)

3만 호 동아의 역사 자부심으로 나아갑시다.

동아일보가 지령 3만 호를 발행했습니다.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표현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문화를 가꾸고 키우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동아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조직들이 2018년 연차보고에서 밝힌 포부처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사진=편집국 사진부 최혁중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동아일보 지령 3만 호 기념행사'에 참석한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양손을 흔들고 있다.

“독자와 함께 만든 동아일보 3만 호”

일제의 탄압, 1970년대 백지광고 사태 등 각종 시련 겪어 민족의 표현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수호하고 문화를 키워와

동아일보가 지난달 26일 3만 호를 발행했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창간호부터 2018년 1월 26일 3만 호까지 모든 지면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신문이다. 독자와 국민의 성원, 제작과 경영에 참여한 동아 가족의 헌신으로 97년 9개월 넘게 쌓아올린 금자탑이다. 이날 3만 호 행사에 참석한 동아 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은 이 같은 자랑스러운 기록에 가슴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출발을 결의했다.

년의 꿈을 지키기 위해 '청년드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사회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영예로운 제복상'을 제정하는 등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 사장은 "이 기록을 통해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는 세대를 넘어 대화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동아의 역사에 자부심”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민미술관 2층에서 열린 '동아일보 지령 3만 호 기념행사'에는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을 비롯해 동아 미디어그룹 임직원, 장기독자와 광고주, 협력업체 임직원 등 사내외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일민미술관은 1926년부터 1992년까지 66년간 동아일보 사옥으로서 동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상징적 장소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동아일보 3만 호가 있기까지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3분 분량의 기념 영상이 방영됐다. 영상에는 동아의 영광스런 순간과 함께 그간 겪었던 온갖 시련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김재호 사장은 기념사에서 “어떤 탄압에도 동아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의 표현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문화를 가꾸고 키우는 역할을 다해왔다”면서 “우리는 이런 동아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최근 연재하고 있는 3만 호 기획기사들을 보면서 독자에게, 국민에게, 또 대한민국에게 동아일보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며 동아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선 동아일보가 우리 현대사의 하루하루를 사심 없이 기록한 교과서이자 일기장임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일제 강점기엔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독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또 3.15 부정선거, 유신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역사의 변곡점마다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새 시대를 열었다. 1987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에는 자유시장 경제의 파수꾼이자 권력과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

1987년 이후 30년간 자유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권력과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감시자 역할

다음으로 동아일보가 문화·예술·스포츠 각계의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길러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25년 국내 최초로 신춘문예를 시작한 동아일보는 윤석중, 황순원, 서정주, 김동리, 정비석, 이문열 등 한국 문단의 별들을 대거 발굴했다. 1961년 시작된 동아음악콩쿠르는 연령 학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국민 오디션'으로 1회 피아노 부문 우승자인 신수정을 비롯해 소프라노 신영옥, 지휘자 임현정, 첼리스트 송영훈 등 수많은 한국 음악계의 스타를 배출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마린보이' 박태환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동아마라톤, 동아수영대회 등 동아의 스포츠행사를 통해 등장했다. 김 사장은 “동아일보는 이들에게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렇게 동아일보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가치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인권이란 개념조차 낯설던 일제 시절 여성의 인권과 남녀 평등을 이야기했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제 동아일보가 3만 호를 넘어 4만 호, 5만 호를 향해 새롭게 출발한다”며 “청년 인촌의 창간 정신처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책

임을 기억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와 현재에 열매이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맞이하자”고 다짐했다.

‘스마트 콜라보레이션’이 빛난 기념식

기념사가 끝난 뒤, 김 사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아일보와 함께 해 온 장기독자, 광고주, 독자센터, 콜센터 사원, 발송기사, 인쇄오퍼레이터, 주요 협력업체 임직원 등 1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받은 이진호 전주페이퍼 상무는 “신문용지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동아일보의 열정과 혼을 담은 그릇이라고 자부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과 노조위원장 그리고 감사패 수령자들이 3만 호 기념 대형 케이크를 자른 뒤, 동아미디어그룹 전 임직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이번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미디어그룹의 다양한 조직들은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정신을 발휘했다.

경영지원국 총무팀은 전체 행사를 기획했고, 시설관리팀과 재단협력위원회가 힘을 보탰다.

또 디유넷은 동아일보 3만 호 관련 영상을 만들었고, 지식서비스센터는 디유넷 영상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및 제작영상 감수를 맡았다.

경영지원국 제작관리팀, 마케팅본부, AD본부, 동아프린테크, 동아MD에선 감사패 전달을 위해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갖는 인물을 추천했다. 편집국 사진부와 채널A 뉴스비전은 행사 전 과정을 사진과 영상에 담았다. 동아미디어센터와 충청포사육의 구내식당에선 점심 특식을 제공했다.

창간호 1면 실은 파격적인 디자인

3만 호는 본지 결면에 창간호 1면이 담긴 특집판을 씌운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특집판에는 창간호 1면 이외에 현대문장으로 풀어쓴 창간사, 창간호에 실린 기사 소개, 3만 호 발자취 그래픽이 담겼다.

3만 호 본지 1면은 '30000번째 동아일보'라는 특별한 제호로 눈길을 끌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독자와 함께 더 나은 나라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3만 호를 맞이하는 각오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따뜻하고 공정한 언론을 만들겠다는 동아일보의 정신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밖에 여러 지면에 걸쳐 동아 특종의 역사, 독자들 '동아 인증샷', 동아와 함께 빛난 문화 예술 스타들 등 다양한 3만 호 관련 기사가 소개됐다.

앞서 편집국은 지난해 말부터 3만 호 발행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다양한 기획 코너를 지면과 온라인에 연재했다.

1월 1일 신년 기획으로 3만 호의 '3만'에 의미를 부여해 '혁신형 창업 기업 3만 개를 육성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이끌자'는 내용의 시리즈를 시작했다. '광고로 본 東亞' 시리즈는 동아일보에 실렸던 과거 광고를 통해 당시의 한국 사회를 들여다봤다. '나와 동아일보'는 이낙연 국무총리, 허영만 화백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동아일보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아하! 東亞'는 동아일보 제호가 만들어진 배경, 동아일보 최초의 사진기자, 일제 강점기의 동아일보 특파원 등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동아일보의 숨은 뒷이야기를 다뤘다.

이와 함께 동아닷컴은 3만 호 특집 페이지(donga30000.donga.com)를 만들어 '동아일보로 보는 현대사'와 '백 투 더 동아' 등의 콘텐츠를 소개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손영일



사진=편집국 사진부 원대연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김재영 노조위원장 그리고 감사패를 받은 장기독자, 광고주 등 11명이 3만 호 기념 대형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민족고난 극복과 민주화, 그 중심에 동아가 있었다



동아일보는 일제와 독재 정권의 수많은 탄압에도 진실의 편에 서서 고난의 길을 걷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권력과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감시자였다. 1920년 4월 1일 창간호부터 2018년 1월 26일 3만 호에 이르기까지 동아일보가 걸어온 발자취를 연대기별로 정리했다.

동아일보 지령 3만 호의 발자취

창간호

1920년 4월 1일

- 인촌 김성수 선생 동아일보 창간
- '주지(主旨)를 선명(宣明)하노라.' 창간사에서 조선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한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문화주의를 제창한다는 내용의 3대 주지를 내세움

1920년 9월 25일

- '제사(祭祀) 문제를 재론하노라'라는 사실로 일본 황실의 상징인 '거울' '옥구슬' '칼' 등 3종 신기 숭배를 비판해 1차 무기정간(148일)을 당함

1920년 11월

- 동아일보 논설기자였던 장덕준 선생(1892~1920·건국훈장 독립장)이 '간도참변(경신참변)'이 시작되자 이를 취재하기 위해 현지로 떠났다가 일본군에 피살

1923년 1월

- 조선물산장려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며 물산장려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특히 1923년 2월 16일자 1면에 일본 경찰이 강연회만 허용하고 가두집회를 불허한 것을 정면 비판하는 사실을 게재

1920년대

1940년 8월 10일

- 8월 11일자 지령 6819호를 마지막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
- "...한번 뿌려진 씨인지라 오늘 이후에도 싹 밀엔 또 새싹이 트고 꽃 위엔 또 새 꽃이 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라는 폐간사를 통해 훗날을 기약

1936년 8월

-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4차 무기정간(277일)

1931~1934년

- 일제강점기 민족 자강의 일환으로 브나로드운동 전개

1930년 4월

- 미국 '네이션'지 촉사 '조선의 현상 하에 귀지의 사명은 중하다' 계재로 제3차 무기정간(139일)

1926년 3월

- 소련에 본부가 있던 국제농민회가 보내 온 3·1운동 7주년 축전 전문 보도로 제2차 무기정간(45일)

1930년대

1945년 12월 1일

- 타블로이드판으로 복간

1955년 8월 19일

- 지령 1만 호

1960년 4월

- 4월 11일 김주열 군의 처참한 시신 사진을 보도. 4월 25일 사실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고 다음날 이 대통령은 하야 발표

1963년 4월 25일

- 동아방송(DBS) 개국. 연간 평균 청취율이 30%를 넘었을 만큼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음

1974년 12월

-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 이에 유신정권이 12월부터 사상 유례없는 광고 탄압을 자행하자 독자들의 격려 광고가 이어짐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95년 10월

- 1995년 10월 19일자 50판 신문에 한국사회를 뒤흔든 '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서막을 여는 특종 기사를 보도.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수감됨

1990년 2월

- 노태우 정부의 최대 비리인 수서특혜분양 사건을 집중 보도함. 기사는 물론이고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긴급제언-이 나라 이대로 안 된다' 제하의 특별기획을 8일 동안 연재

1987년 6월

- 1987년 1월 16일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특종 보도해 1980년대 5공 권위주의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6월 항쟁을 촉발

1986년 10월 1일

- 지령 2만 호

1980년 11월 30일

-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동아방송(DBS) 강제 폐방

1990년대

1980년대

1999년 11월 18일

- 김대중 정부 당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에게 고가의 옷을 건넨 이른바 '옷로비 사건'을 단독보도. 이후에도 권력과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

2007년 7월

- 검찰이 신동아 6, 7월호에 실린 '최태민 보고서' 관련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겠다고 동아일보 전산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편집국과 출판국 기자 60여 명이 압수수색을 저지

2011년 12월 1일

- 종합편성채널 채널A 개국

2012년 7월

-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드림 프로젝트'를 시작.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2012년 1월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영예로운 제복상'을 제정하는 등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회적 공유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

2018년 1월 26일

- 지령 3만 호

2000년대

2010년대

“우리의 콘텐츠 이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동아미디어그룹 연차보고 1월 23~25일 진행 구체적인 기획, 명확한 타겟, 전달 방식의 혁신 필요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독자(시청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1월 23~25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 2018년 연차보고에서 “타겟을 정확히 설정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전달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동아가 나아가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텔링 콘텐츠’
독자와 시청자가 공감하고 의미와 가치를 자발적으로 나누는 ‘텔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콘텐츠 제작 조직의 숙명이다. 그러기 위해선 타겟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김 사장은 편집국과 출판국, 보도본부와 제작본부, 동아사이언스와 스포츠동아 등 콘텐츠 제작부서에 “각자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기사,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지만 의미를 담은 기획 기사를 쓸 때는 좀 더 타겟을 확실히 하길 바란다”면서 “이 기사는 최소한 누구는 봤으면 좋겠다”든지 ‘어

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맞춰 편집국은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지면 레이아웃의 변화, 현장 르포와 칼럼의 결합 등 새로운 포맷의 기사를 예고했다. 콘텐츠기획본부는 주말 ‘읽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공략한 ‘혁신 토요일’으로, 논설위원실은 논설위원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동영상 칼럼’으로 독자들에게 성큼 다가간다.

제작본부는 주말 전자제인 목요일 밤엔 여행과 음악을 테마로 한 <우주를 줄게>와 금요일엔 맞춤형 로맨스 예능 <하트시그널2>를 각각 선보인다. 보도본부는 한층 짙어진 룩으로 뉴스의 깊이와 세련미를 함께 끌어올릴 예정이다.

경계 구분 없인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동아미디어그룹 안팎을 가리지 않고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스마트 콜라보레이션’도 중요 과제다. 김 사장은 동아일보가 보도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방



2018년도 동아미디어그룹 연차보고가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렸다. 사진은 24일 채널A 연차보고 모습.

한 복장’ 기사를 동계올림픽 관공권 구매자가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림픽조직위와 협업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다.

미래전략연구소는 디유넷, 인터비즈와 3자 협업 체제를 이뤄 B2C 교육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심의실은 품격 있는 채널A를 구현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근절하기 위해 보도·제작 부서는 물론 IP법무팀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편성본부는 방송프로세스의 전반을 점검·조정하는 최고 운영책임자(COO)를 자임했다. 편성과 운영이란 역할이 머무르지 않고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직전부터 방송 직후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체크한다는 각오로 안정적인 방송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적극 추진한다. 전략기획본부는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주목도가 높은 행사를 유치해 시너지를 낸다. 청년드림센터는 청년 아젠다를 집중·확산하기 위해 2030 세대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적극 발굴한다.

다양한 역할 수행하는 ‘프로-크리에이터’
변화한 콘텐츠와 콘텐츠 유통의 경쟁력은 조직원의 프로페셔널함에서 나온다. 김 사장은 AD본부와 미디어랩A와 같은 사업 조직에게 “영업 전략을 고도화하고 보다 프로페셔널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동아를 창간했듯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각오로 노력을
”

또 콘텐츠 제작 부서에는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기획을 주니어 기자들이 담당해 세간의 큰 화제를 만들어냈듯이,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아는 기자가 보도하도록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이란 조언도 덧붙였다. 신설된 뉴센테니얼본부는 새로운 100년의 근간을 이끄는 조직 문화 정착 실

험에 나선다. 우선 ‘끈대 문화’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채널A 미디어랩과 채널A 뉴스비전, 채널A B&C는 내부 역량을 강화해 채널A 콘텐츠의 룩과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영지원본부와 경영지원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노무 이슈와 정책 동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마케팅본부는 독자센터 서비스지수를 관리하며 동아일보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문화사업본부와 스포엑스컴은 ‘동아에서 하는 행사는 즐겁다’란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트렌디함을 동시에 갖춘다. 동아 E&D는 고품질의 지면을, 동아 프린테크는 안정된 인쇄 환경을, 동아MD는 무사고 배달로 동아일보가 독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여한다.

김 사장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동아를 창간했듯이, 대한민국이 좀 더 밝고 발전하며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각오로 항상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은지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1월 24일 채널A 연차보고에서 “콘텐츠 전달 방법에 대해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사회적 공유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DAMG

국민 지키는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한국문단 이끄는 신춘문예, 드론으로 감동사연 찾는 채널A ‘하트드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사회적 공유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동아미디어그룹의 노력은 2018년에도 계속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제7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1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 구조와 보호에 22년째 헌신하고 있는 서울 은평경찰서 양성우 경위가 대상을 받는 등 총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12년 제정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소방관, 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국민

의 신뢰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23년 시작된 ‘동아일보 신춘문예’는 올해도 중편소설, 단편소설, 시 등 9개 부문에서 앞으로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신진 작가들을 대거 발굴했다.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지닌 동아 신춘문예의 무게감은 여느 언론사의 신춘문예와 비교할 수 없다.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 선택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발굴로 한국문단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1100여 명의 소설가, 시인, 문학평론가 등을 배출했다.

1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은 9명의 작가들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앞으로 작가로서의 희망과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방송된 채널A <하트드론>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

<하트드론>은 연예계 스타들이 드론을 직접 조종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배우 김재원은 보육원 아이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주는 깜짝 산타로 활약했으며, 가수 에릭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소방관의 프로포즈를 도왔다.

개그우먼 이수지는 루게릭병으로 15년 간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살피는 남편에게 짧은 휴가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여는 등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가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수영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선정한 ‘제7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들이 1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를 들고 동료와 가족 앞에 나란히 서 있다(1).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2). 채널A <하트드론>에 출연한 배우 김재원이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잘라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3).

“입사 순간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동아일보-채널A 입사자

겨울 공전에 온 듯...
프랑스 미술 한 눈에



카를루스뉘랑 '안나 오볼렌스카야의 초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르미타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러시아 황실과 귀족의 생활을 그린 작품과 프랑스 예술 작품들이 대거 서울을 찾았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예르미타시 박물관전, 겨울 공전에 온 프랑스 미술'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는 18세기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가 수집해, 자신의 궁전인 '겨울 공전'에 보관한 회화부터 20세기 초 러시아 기업가들이 구입한 인상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89개의 프랑스 회화, 조각, 소묘 등을 선보인다.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실제 예르미타시 박물관의 모습을 본뜬 아치기둥 장식의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는 4월 15일(일)까지 열린다.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중고교생 및 대학생 5500원, 초등학생 5000원, 65세 이상 및 유아 4000원. 문의 02-1688-0361.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희현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 ① 출생연도
- ② 최종 직장 / 학교
- ③ 입사 후 포부
- ④ 요즘 관심사



양민석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신성장동력팀

- ① 1989년
- ② 중앙 M&C/마케팅기획
- ③ DBR과 HBR이 가진 매체의 본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팀'이라는 팀명처럼 새로운 성장의 한줄기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④ 광화문에 '맛집'이 많은데, 직접 맛보고 저만의 맛집 지도를 작성해볼 계획입니다. 맛집 추천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김영훈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대구경북팀

- ① 1988년
- ② 매일신문사 독자서비스국
- ③ 경력직으로 입사한 만큼 빠르게 적응하여 현장에서 활약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해 동아일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거듭나겠습니다.
- ④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께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조금씩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채지윤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총무팀

- ① 1994년
- ② 삼성물산 플랜트사업부 / 임원비서
- ③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이라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빨리 적응하고 겸손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④ 요즘은 전시회, 꽃꽂이, 맛집, 분위기 좋은 예쁜 카페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색다르고 재미있는 취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황태주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제작관리팀

- ① 1976년
- ② 동아닷컴 CTS팀/신문제작시스템 운영
- ③ 신입사원의 열정과 경력사원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아일보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 ④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인 도시어부의 영향 덕분에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던 낚시에 많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화창한 봄날이 오면 지인들과 낚시의 재미를 느껴볼까 고민 중입니다.



임수연 / 채널A
경영전략실 경영기획팀

- ① 1999년
- ② 동구마케팅고 문화콘텐츠마케팅과
- ③ 간절하게 바라온 회사에 입사한 만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실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 ④ 요즘 저의 관심사는 서울 곳곳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의 새로운 시즌이 나와서 하루빨리 정주행 하고 싶습니다!



송경혁 / 채널A
제작본부 제작1팀

- ① 1983년
- ② CJ E&M(Mnet) / <내사람친구의연애>, <언프리티랩스타>
- ③ 앞으로 채널A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채널A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④ '좋은 PD가 되는 것'과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모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노소영 / 채널A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 ① 2000년
- ② 동구마케팅고 문화콘텐츠마케팅과
- ③ 조금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배워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일하겠습니다. 채널A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④ 기쁠 때는 춤과 함께 신나는 곡을, 우울할 때는 잔잔한 곡을 듣거나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나중에는 저만의 노래를 꼭 한번 만들어 불러보고 싶습니다.

톱스타들의 지방 제로 식단 '떠먹는 토마토 양파 스테이크'



국제 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활성산소로 인해 나잇살이 생길 경우 대장암, 위암, 간암 등 13가지 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활성산소로 인해 생기는 나잇살을 신중 전염병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몸신에서는 나잇살을 예방할 수 있는 '떠먹는 토마토 양파 스테이크' 요리법을 알려드립니다. 토마토와 양파는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부종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등심은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되는 재료입니다.

먼저 양파와 토마토, 등심, 꿀을 준비합니다. 껍질을 벗긴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토마토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긴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어 소 등심의 인대와 기름을 제거한 후 살코기만 따로 분리하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냄비에 양파, 토마토, 등심 순으로 넣어줍니다. 중간 불로 가열하다 물이 생기면 저어 줍니다. 약 2시간 정도 끓이면 '떠먹는 토마토 양파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꿀은 기호에 따라 넣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통해 자세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토마토, 양파, 등심, 꿀을 준비합니다.



② 껍질을 벗긴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토마토는 끓는 물에 데쳐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③ 등심은 인대와 기름을 제거한 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냄비에 양파-토마토-등심 순으로 넣어준 후 중간불로 가열하며 물이 생기면 저어줍니다.



④ 약 2시간 정도 끓이면 떠먹는 토마토 양파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사옥 층별 배치 일부 조정... 확인하세요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층별 배치에 변화가 생겼다. 새롭게 생긴 동아일보 뉴센테니얼본부는 9층에, 채널A 편성본부는 18층에 마련됐다. 위치가 바뀐 조직도 있다. 청년드림센터는 9층에서 15층으로, 오피니언팀은 12층에서 15층으로 이사했다. 총정리 사옥은 동아 프린테크가 5층에서 6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한편,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심장충격기)도 추가로 설치됐다.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는 기존에 설치된 1층 외에 12층과 21층, 총정리 사옥도 기존 1층에 이어 9층에 자동제세동기를 추가 설치했다. 삼양DDMC는 1층에 설치돼 있다. 일민미술관 5층에도 새로 설치했다. 경영전략실 콘텐츠브랜딩팀 이유진

층별 배치

층수	동아일보	채널A
19	경영전략실	경영전략실
18	재경국, 마이다스동아	편성본부, 의상실, 분장실
17	콘텐츠기획본부, 동아E&D	-
16	경영지원국	-
15	정책사회부, 스포츠부, 오피니언팀, 뉴스룸지원팀, 청년드림센터	-
14	편집국장실, 편집부, 정치부, 사회부, 뉴스디자인팀	사회부, 정치부
13	산업1부, 산업2부, 경제부	보도본부장실, 뉴스이노베이션팀, 디지털뉴스팀, 편집부, 산업부, 경제부, 보도제작팀
12	디지털뉴스팀, 국제부, 문화부, 사진부, 여론연구팀	국제부, 문화과학부
11	편집국 화상파트	채널A뉴스비전
10	AD본부	-
9	미래전략연구소, 인터비즈, 뉴센테니얼본부	-